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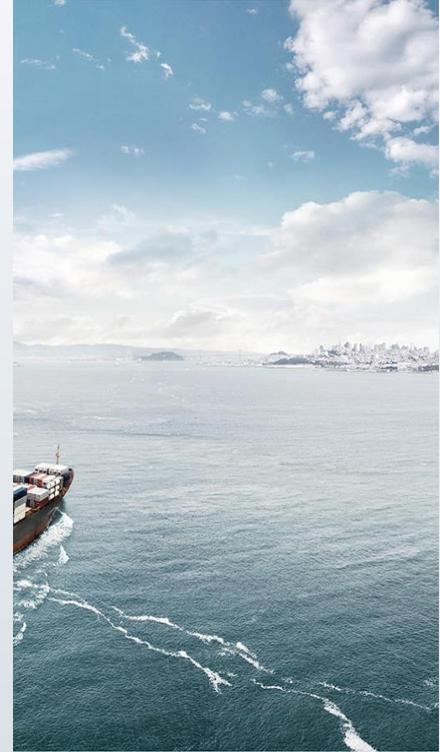


STL MARKET REPORT

Weekly Focus No.352

Updated June 1, 2021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Contents

News	1
Bulk Carrier	6
- BC Sales Report	
Tankers	10
- Tanker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5
- Demolition Sales Report	
Key Indicators	18
Issue	20
Contact Information	22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 . NEWS

1. 韓 朝鮮, '5 개월 수주'가 지난 한해 수주 뛰어넘었다

한국 조선사들이 최근 일주일 내 총 1 조 8890 억원 규모의 선박을 수주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올해 5 개월간 수주가 지난해 연간 실적을 뛰어넘을 정도다. 전 세계 발주 증가로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공간인 도크가 빠르게 채워지면서 신조선가도 계속 오르는 추세다.

1 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오세아니아, 유럽 및 아프리카 소재 5 개 선사로부터 지난 28 일과 31 일 이틀간 총 1 조 3600 억원 규모의 선박 12 척을 수주했다. 삼성중공업은 아시아 지역 선주로부터 총 5290 억원 규모의 대형 컨테이너선 4 척을 수주했다.

한국조선해양은 대형 LNG(액화천연가스)운반선 4 척, 8 만 6000 m³(입방미터)급 초대형 LPG(액화석유가스)운반선 2 척, 4 만m³급 중형 LPG 운반선 1 척, 5 만톤급 PC 선 4 척, 3 만m³급 소형 LNG 운반선 1 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대부분 LNG 나 LPG 이중연료 추진엔진이 탑재된 친환경 선박이다. 각 선박들은 2023 년 하반기부터 2024 년 상반기까지 인도한다.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컨테이너선은 1 만 3000TEU 급 선박으로 20 피트(FT) 컨테이너 13000 개를 실을 수 있다.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 △선박평형수 처리장치(BWTS) △연료 절감장치 △스마트십 솔루션 에스베슬(SVESSEL) 등을 탑재했다. 삼성중공업은 2024 년 2 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에 발주된 선박 발주량은 5 월 말까지 1795 만 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다. 지난해 전 세계 선박 발주량 2150 만 CGT 의 83%에 해당한다.

한국조선해양은 현재까지 해양플랜트 2 기를 포함해 총 122 척, 108 억달러를 수주했다. 올해 수주 목표 149 억달러의 72%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수주 실적인 106 척, 94 억 달러를 뛰어넘는다.

삼성중공업도 이번 계약까지 포함해 총 48 척, 59 억 달러를 수주했다. 올해 목표 91 억 달러의 65%다. 이는 5 개월만에 지난해 전체 수주 실적 55 억 달러를 넘어선 실적이며, 1~5 월 누계 기준으로는 2012 년 60 억 달러 수주 이후 최대 규모다.

올해 들어 세계 경제 회복 기대감, 해상 물동량 회복 등으로 선박 발주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영국의 조선해양 시황분석 기관인 클락슨리서치가 발표하는 신조선가지수(NEWBUILDING PRICE INDEX)는

I. NEWS

지난해 11월에 125.0 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상승하며 5월 말 기준 9% 오른 136.1 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12월(137.8 포인트) 이후 최고 수치다.

도크가 채워짐에 따라 여유를 찾게 된 조선업계가 조만간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조선사들이 빠르게 일감을 확보하면서 현재 남아 있는 도크 슬롯 밸류(DOCK SLOT VALUE)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로,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도 "세계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전 선종에 걸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향후 수익성 위주의 선별수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스리랑카, '화재 컨테이너선' 선주 대상 소송..."해양 오염 최악"

스리랑카 정부가 자국 영해에서 발생한 컨테이너선 MV X-프레스 펄호의 화재와 관련해 환경 오염을 이유로 해당 선박의 선주 등을 고소하기로 했다.

31일 AFP 통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리랑카 정부 해양보호국은 전날 산자야 라자라트남 정부 법률 고문을 만나 MV X-프레스 펄호의 선주인 X-프레스 피더스를 비롯해 선원, 보험사 등을 상대로 이런 내용의 법적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르샤니 라한다푸라 해양보호국장은 "우리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며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경 훼손 규모에 대한 평가는 아직 마무리 짓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번 사고는 스리랑카가 겪은 해양 오염 가운데 최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도 이번 사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경찰 대변인인 아지트 로하나는 "구조된 선장 등 선원은 격리 중이지만 보건 당국은 이들에 대한 신문을 시작해도 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I . NEWS

선박을 스리랑카 영해 밖으로 끌어내는 작업은 아직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화와 전문가의 선체 상황 검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선주 측은 계속된 화재에도 불구하고 선체 구조 자체는 아직 크게 손상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지난 20 일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북서쪽으로 18 km 떨어진 해역을 지나던 컨테이너선 MV X-프레스 펄에서 화재가 발생, 이날까지 12 일째 이어지고 있다. 스리랑카군과 인도 해양경비대 등이 선박과 항공기를 투입하며 사투를 벌인 끝에 지금은 어느 정도 불길이 잡혔지만 완전히 진화하려면 며칠이 더 필요하다고 스리랑카 해군 관계자는 밝혔다.

MV X-프레스 펄호는 이달 초 인도 서부 하지라를 출항했고 콜롬보를 거쳐 싱가포르로 향할 예정이었다. 해당 선박은 싱가포르 선적으로 1352 천 486 개의 컨테이너를 실은 상태였다. 이 화물에는 질산 25T 등 화학 제품과 화장품도 포함됐다. 화재가 계속되면서 많은 컨테이너가 바다로 떨어졌다. 또 컨테이너에 실렸던 플라스틱 알갱이 여러 T도 바다로 쏟아졌다. 이로 인해 인근 해변에는 타다 남은 컨테이너 잔해와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알갱이가 밀려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컨테이너선 화재는 관광과 어업으로 유명한 인근 어촌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줬다. 새우와 게 등이 주로 잡히는 인근 네곰보 지역 등에서는 화재 발생 후 이미 조업이 금지됐다.

화재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당국은 부실한 포장으로 인해 질산 등이 새면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 등을 제기하고 있다. 선원 25 명은 지난 25 일 모두 구조됐다.

3.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해상 넘어 항공화물 진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공식화했다. 김 회장은 1 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존 팬오션을 통해 해상화물만 했지만, 항공화물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팬오션으로 이스타항공을 인수해 항공화물쪽으로 진출하고자 한다. 점진적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림그룹은 STX 그룹에서 분리된 팬오션을 2015 년 인수하면서 물류 사업을 확대해왔다. 팬오션은 철광석, 석탄, 곡물 등을 운송하는 벌크선에서 70%의 매출이 나온다.

다만 인수 자체는 아직 넘을 산이 높다. 여객 업무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최우선 변제 대상인 임직원 임금과 각종 세금도 수백억원에 달해서다.

I . NEWS

김 회장은 "임금, 세금 등 강제로 인수해야 할 부채가 상당해 인수 과정에서 원매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 인수자는 최소 1000 억원대 이상의 유상증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수역량이 있는 하림에게 관심이 모아지는 배경이다. 하림지주는 연매출 2 조원에 자산만 10 조원에 달한다. 연간 영업이익은 1000 억원이며, 팬오션이 보유한 순현금은 지난해 말 기준 1900 억원 수준이다.

옛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도심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 김 회장은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하고 있다. 서두르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화물터미널 부지는 하림그룹 계열사 NS 홈쇼핑의 자회사 엔바이콘이 2016년 5월 26일 4525 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이 일대에 양재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추진했다. 서울시와 하림의 뜻이 맞지 않아 지연된 바 있다.

4. P4G 서울선언문 채택...文 관심사 '해양오염 문제' 담겨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서울선언문' 채택과 함께 31 일 막을 내렸다.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에 다가가기 위한 P4G 회원국들의 협력 의지가 선언문에 담겼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각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해양플라스틱 문제가 선언문에 포함되며 해양오염 해결에 각국의 뜻을 모으는 성과도 거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10 시부터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P4G 정상회의의 실시간 토론세션을 주재했다. 토론자들은 △코로나 19 로부터의 포용적 녹색회복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기후행동 강화 및 민관 협력 확산을 위한 노력 등 3 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1 회 P4G 정상회의 개최지인 덴마크의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와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 13 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 토론세션 의제발언에서 "탄소중립은 지속가능한 녹색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며 "탄소중립을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 각계각층의 국민으로부터 공감대를 얻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술개발과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진국들의 과거처럼,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개발도상국에게는 탄소중립의 길이 매우 어렵다. 선진국들이 지원을 늘려 개발도상국의 부담을 함께

I. NEWS

나뉘야 한다”며 “한국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한국 송도에 문을 연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협력사무소와 녹색기술센터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친환경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기후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그린 뉴딜 펀드 신탁기금 설립 등 개발도상국의 재원 마련과 역량 강화에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0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P4G 정상회의의 결실로 서울선언문도 채택했다. 서울선언문은 정상회의 참가 국가 및 국제기구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실천을 담은 문서다. 문 대통령은 크게 14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서울선언문의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들은 기후위기가 환경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안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데 동의하고, 코로나 19 역시 녹색회복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녹색회복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자는 파리협정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의 국제사회 노력에 더해져 이번 회의를 통해 강화된 민관 협력이 다가오는 11 월, 제 26 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물, 에너지, 식량 및 농업, 도시, 순환경제, 금융, 지자체의 역할 강화, 포용적이고 공정한 전환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나아가 기후행동 확산을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지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서울선언문에는 문 대통령이 관심사로 공개 발언해온 해양오염 문제도 포함됐다. 선언문에는 “우리는 해양오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 결속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우리는 해양이 중요한 자연적 탄소흡수원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해운의 탈탄소화를 통해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해양의 추가적인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에서 개최된 최초의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인 P4G 정상회의는 지난 30 일 시작돼 이날 마무리됐다. 제 3 회 P4G 정상회의는 오는 2023 년 콜롬비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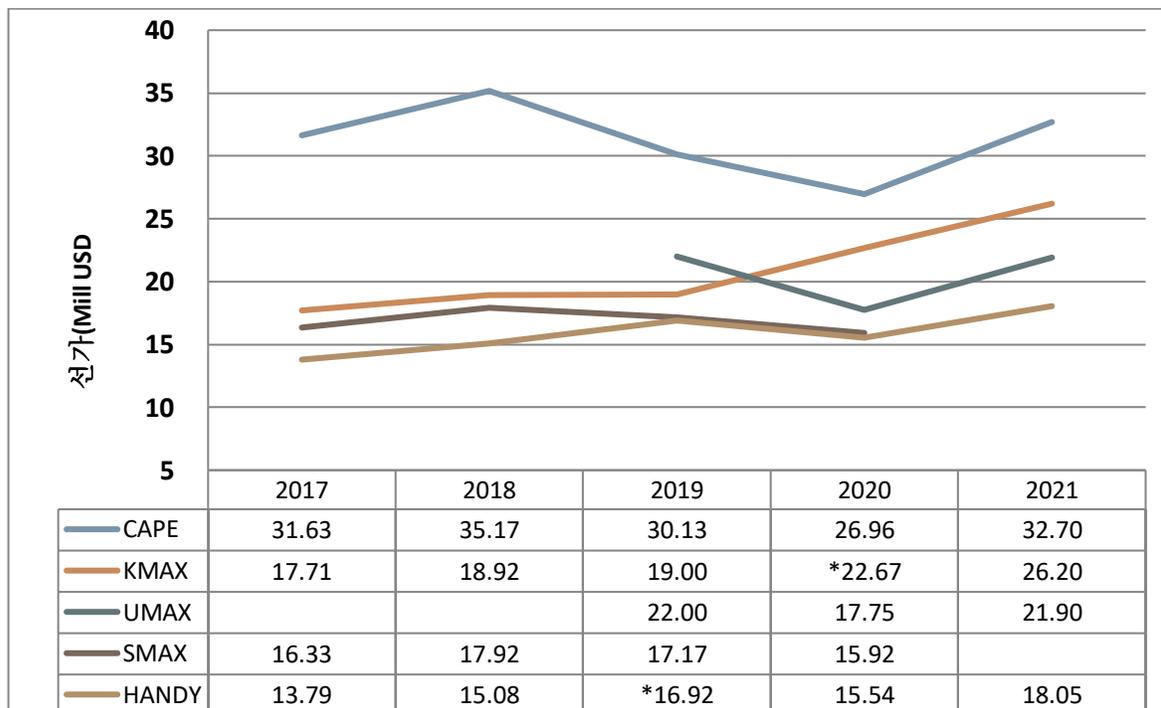
II .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연평균 선가	2017	2018	2019	2020	2021
Capesize (180K)	31.63	35.17	30.13	26.96	32.70
	31.43%	11.20%	-14.34%	-10.51%	21.30%
Kamsarmax (82K) (*19 년까지는 76K 기준)	17.71	18.92	19.00	*22.67	26.20
	29.57%	6.82%	0.42%	19.30%	15.59%
Ultramax (60-61K) (19 년부터)	--	--	22.00	17.75	21.90
	--	--	--	-19.32%	23.38%
Supramax (58K) (20 년까지)	16.33	17.92	17.17	15.92	--
	25.44%	9.69%	-4.20%	-7.28%	--
Handysize (37K) (*18 년까지는 32K 기준)	13.79	15.08	*16.92	15.54	18.05
	38.78%	9.37%	12.18%	-8.13%	16.14%

□ BC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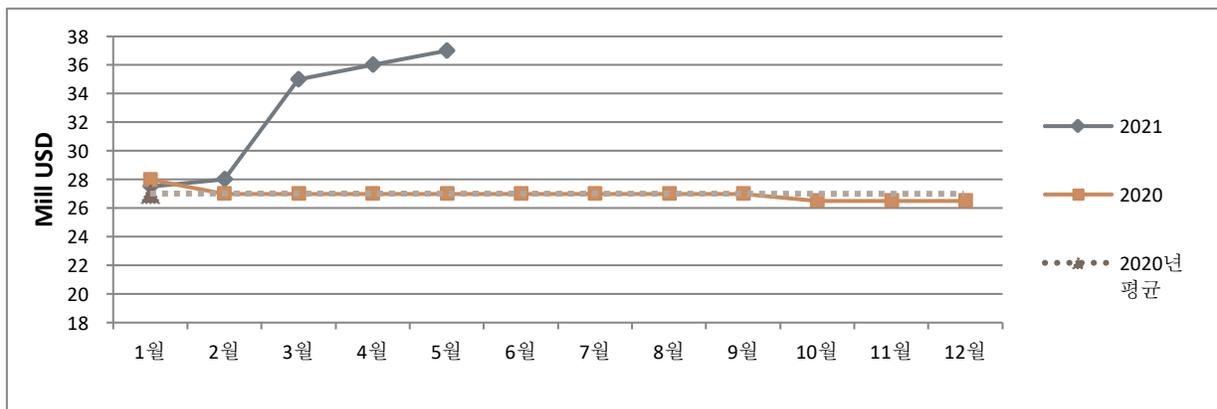




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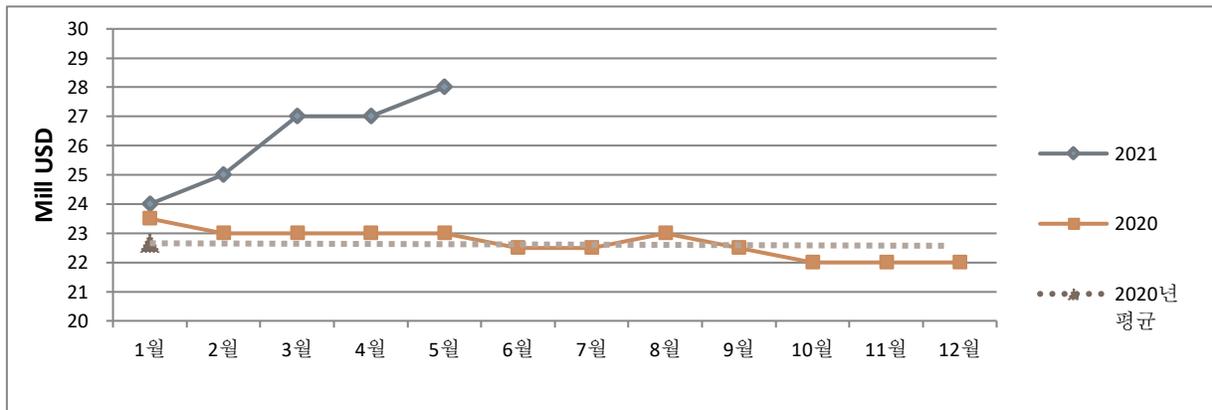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평균
2021	CAPE (180K)	선가	27.50	28.00	35.00	36.00	37.00		32.70
		전월대비	3.8%	1.8%	25.0%	2.9%	2.8%		-
		전년대비	-1.8%	3.7%	29.6%	33.3%	37.0%		21.3%
	KMAX (82K)	선가	24.00	25.00	27.00	27.00	28.00		26.20
		전월대비	9.1%	4.2%	8.0%	0.0%	3.7%		-
		전년대비	2.1%	8.7%	17.4%	17.4%	21.7%		15.6%
	UMAX (60-61K)	선가	20.00	20.50	22.50	22.50	24.00		21.90
		전월대비	12.7%	2.5%	9.8%	0.0%	6.7%		-
		전년대비	--	--	--	--	--		-
HANDY (37K)	선가	14.75	16.25	19.25	20.00	20.00		18.05	
	전월대비	0.0%	10.2%	18.5%	3.9%	0.0%		-	
	전년대비	-13.2%	-4.4%	13.2%	17.6%	29.0%		16.1%	
2020	CAPE (180K)		28.00	27.00	27.00	27.00	27.00	27.00	26.96
	KMAX (82K)		23.50	23.00	23.00	23.00	23.00	22.50	22.67
	SMAX (58K)		17.00	16.50	16.50	16.50	16.00	15.50	15.92
	HANDY (37K)		17.00	17.00	17.00	17.00	15.50	15.00	15.54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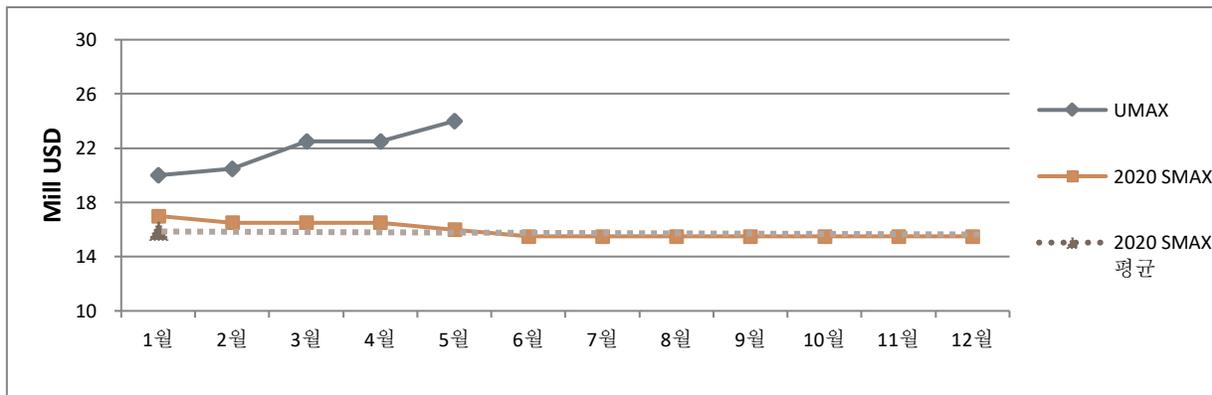


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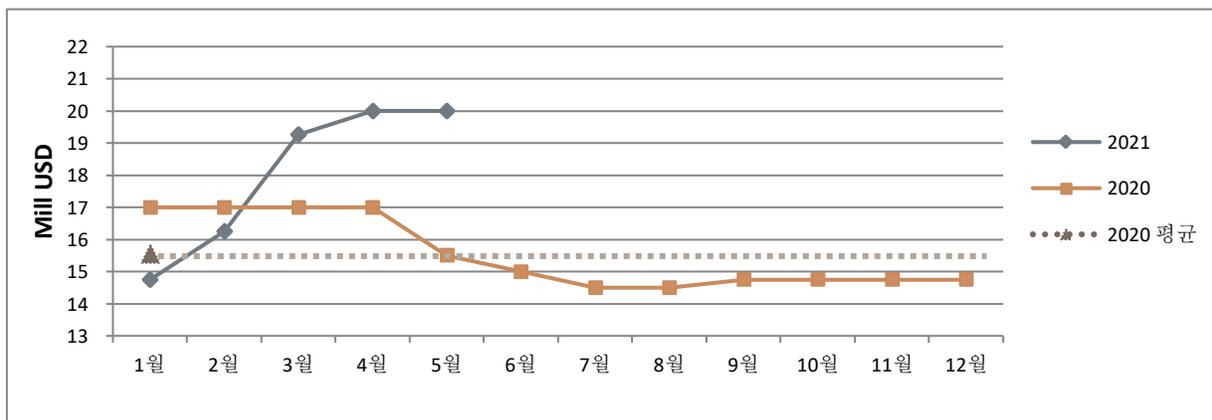
□ Kamsarmax



□ Ultramax & Supramax



□ Handy



II . BULK CARRIER

III-1.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MINERAL KYOTO	180,000	2004	JAPAN	B&W		15.5	Undisclosed buyer, BWTS & Scrubber fitted
BC	BOTTIGLIERI SOPHIE GREEN	93,283	2011	CHINA	B&W		16.5	Undisclosed buyer, BWTS fitted
BC	MARLENE DAMATO	93,270	2012	CHINA	B&W		15.5-15.7	Undisclosed buyer
BC	IOANNA L	81,837	2017	JAPAN	B&W		29.0-29.5	German buyer, BWTS fitted
BC	SOROCO	78,888	2008	JAPAN	B&W		15.5	Undisclosed buyer
BC	MARIA	76,015	2003	JAPAN	B&W		12	Undisclosed buyer, BWTS fitted
BC	ASL VENUS	75,928	2001	JAPAN	B&W		8.8	Undisclosed buyer
BC	NAUTICAL HILARY	63,553	2015	CHINA	B&W	C 4x36t	44-2EB	US buyer (Eagle Bulk), BWTS & Scrubber fitted
BC	NAUTICAL LOREDANA	63,553	2015	CHINA	B&W	C 4x36t		
BC	AMS PEGASUS III	56,521	2012	CHINA	B&W	C 4x36t	14.65	Undisclosed buyer, BWTS fitted
BC	ARCHAGELOS MICHAEL	53,460	2007	VIETNAM	B&W	C 4x36t	8.20-8.25	Undisclosed buyer
BC	SREDNA GORA	37,302	2010	CHINA	WART	C 4x30t	11.6	Greek buyer, BWTS fitted
BC	SIDER SYROS	36,844	2016	JAPAN	B&W	C 4x30t	20.5-20.7	German buyer, BWTS fitted
BC	NEW GENERAL	35,009	2011	JAPAN	B&W	C 4x30t	13.8	Undisclosed buyer
BC	MANZANILLO	34,426	2010	KOREA	B&W	C 4x35t	11.5	Greek buyer, Incl. TC attached
BC	FOUR DIAMOND	34,059	2011	VIETNAM	B&W	C 4x30t	20-2EB	Undisclosed buyer
BC	FOUR EMERALD	33,992	2013	VIETNAM	B&W	C 4x30t		Undisclosed buyer, BWTS fitted
BC	ORIENT ALLIANCE	33,755	2012	CHINA	B&W	C 4x35t	--	Greek buyer, Incl. TC attached
BC	ORIENT ADVENTURE	33,730	2011	CHINA	B&W	C 4x35t	--	Greek buyer, Incl. TC attached
BC	TRIADES	28,496	2005	JAPAN	B&W	C 4x30.5t	8.2	Undisclosed buyer, BWTS fitted
BC	MOUNT HOPE	28,180	2014	JAPAN	B&W	C 4x30.5t	10.7	Undisclosed buyer, BWTS & Log fitted, Waiving inspection
BC	MAGNATE	18,828	2004	JAPAN	B&W	C 3x30.5t	4.6	Chinese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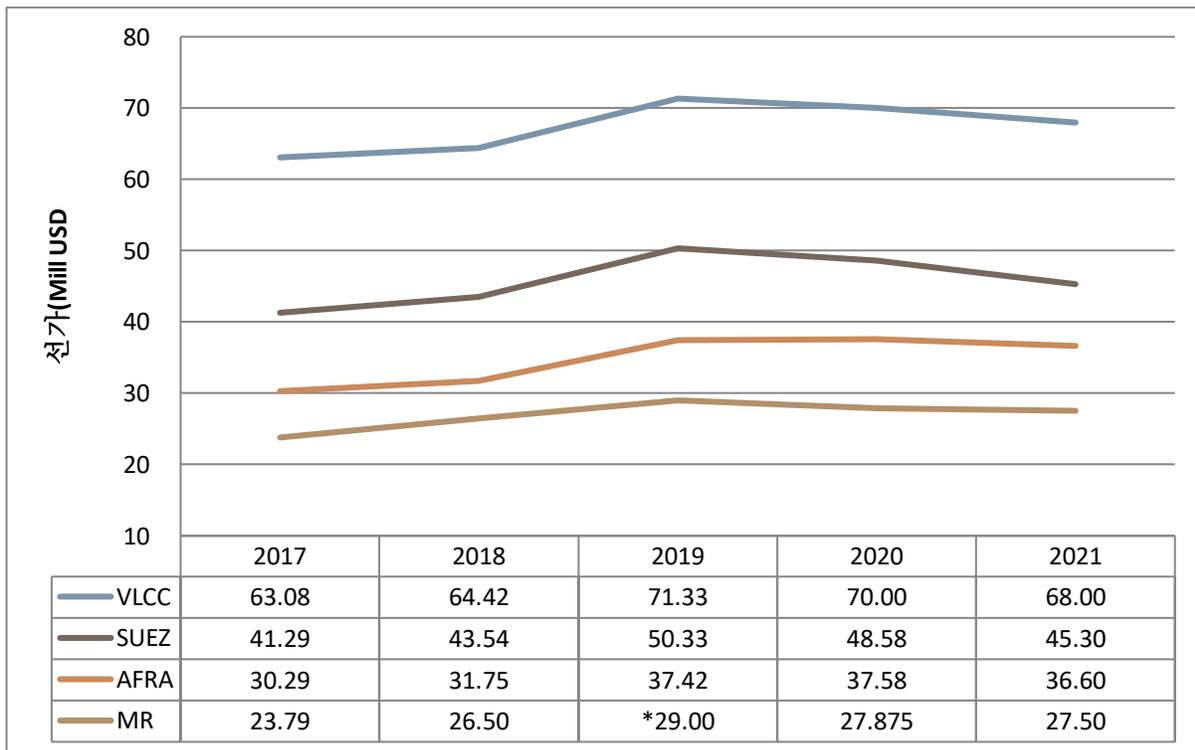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VLCC (310K)	63.08	64.42	71.33	70.00	68.00
	-6.89%	2.11%	10.73%	-1.87%	-2.86%
Suezmax (160K)	41.29	43.54	50.33	48.58	45.30
	-15.15%	5.45%	15.60%	-3.48%	-6.76%
Aframax (105K)	30.29	31.75	37.42	37.58	36.60
	-15.66%	4.81%	17.85%	0.45%	-2.62%
MR (51K) *18년까지는 49K 기준	23.79	26.50	*29.00	27.875	27.50
	-4.19%	11.38%	9.43%	-3.88%	-1.35%

□ TANKER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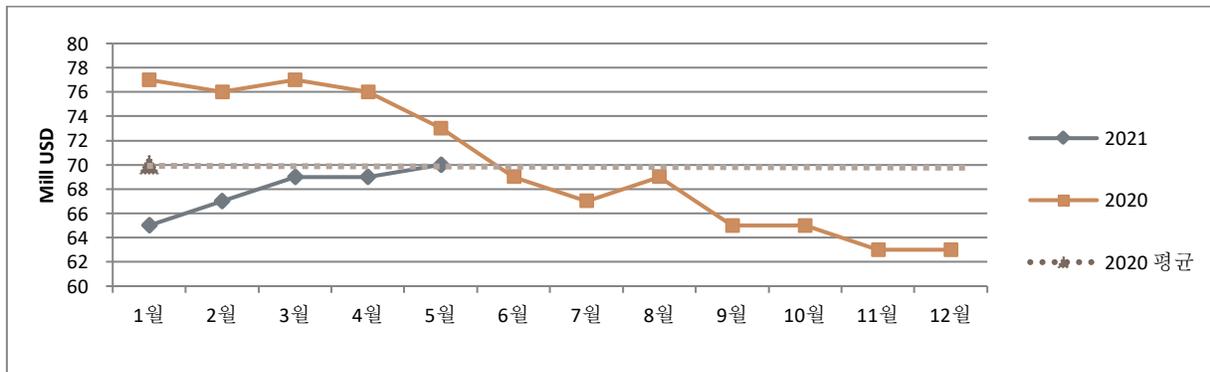




III. TANKER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2021	VLCC 310K	선가	65.00	67.00	69.00	69.00	70.00		68.00
		전월대비	3.2%	3.1%	3.0%	0.0%	1.4%		-
		전년대비	-15.6%	-11.8%	-10.4%	-9.2%	-4.1%		-2.9%
	SUEZ 160K	선가	44.00	43.00	45.00	47.00	47.50		45.30
		전월대비	2.3%	-2.3%	4.7%	4.4%	1.1%		-
		전년대비	-17.0%	-18.9%	-15.1%	-11.3%	-6.9%		-6.8%
	AFRA 105K	선가	33.00	33.00	37.00	40.00	40.00		36.60
		전월대비	1.5%	0.0%	12.1%	8.1%	0.0%		-
		전년대비	-19.5%	-22.4%	-12.9%	-5.9%	0.0%		-2.6%
	MR 51K	선가	27.50	27.50	27.50	27.50	27.50		27.50
		전월대비	5.8%	0.0%	0.0%	0.0%	0.0%		-
		전년대비	-8.3%	-11.3%	-11.3%	-8.3%	-1.8%		-1.3%
2020	VLCC	77.00	76.00	77.00	76.00	73.00	69.00	70.00	
	SUEZ	53.00	53.00	53.00	53.00	51.00	49.00	48.58	
	AFRA	41.00	42.50	42.50	42.50	40.00	37.50	37.58	
	MR	30.00	31.00	31.00	30.00	28.00	27.50	27.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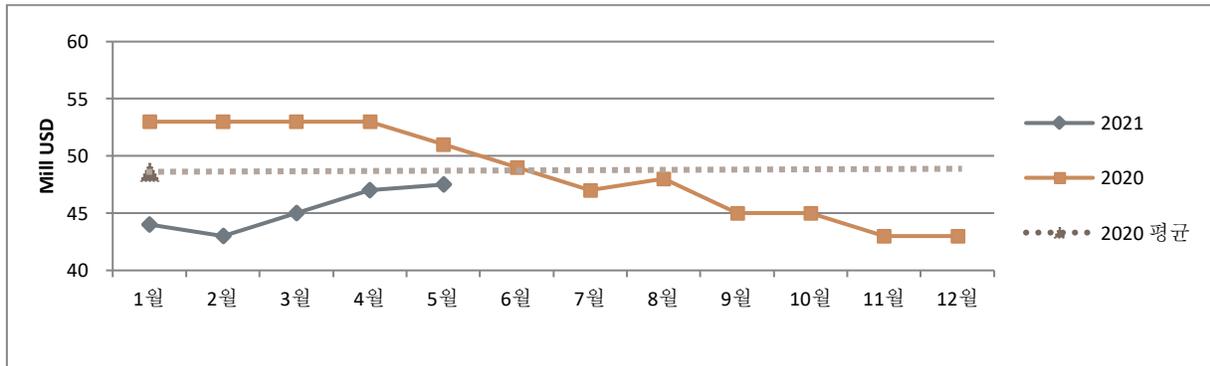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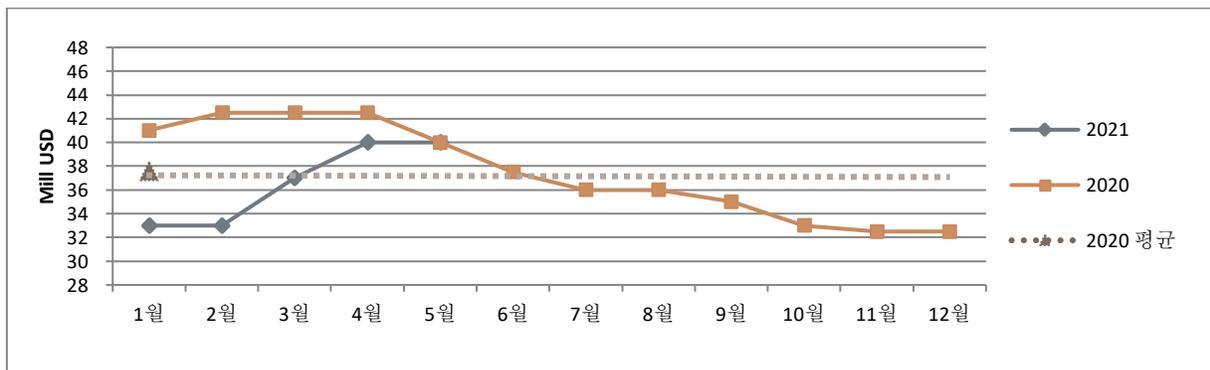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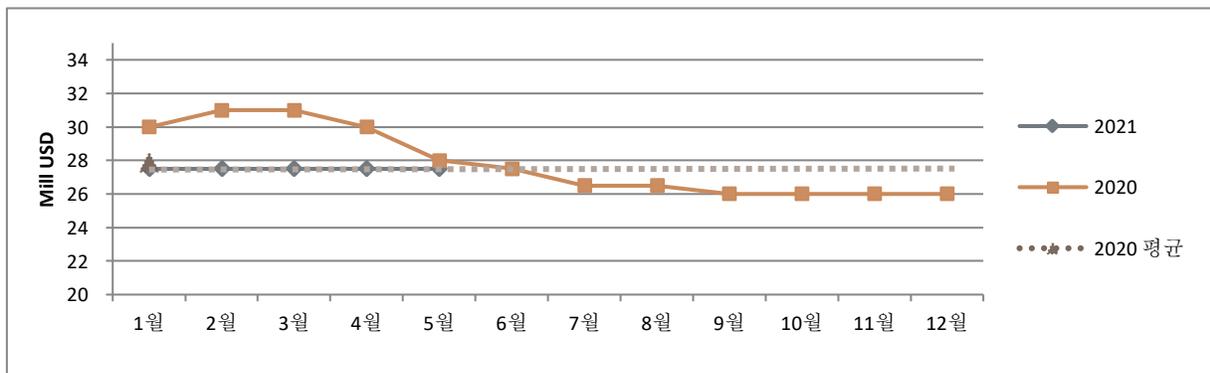
□ SUEZMAX-160K



□ AFRAMAX-105K



□ MR-51K



III. TANKER

IV-1. Tanker Sales Report

1) TANK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MOGRA	150,709	2000	JAPAN	SULZER		16.0-16.5	Chinese buyer, Delivered, EPOXY
TANKER	VOYAGER	149,995	2002	JAPAN	B&W		32-2EB	Undisclosed buyer
TANKER	ASTRA	149,995	2002	JAPAN	B&W			
TANKER	ORO SINGA	113,333	1999	KOREA	B&W		9.9	Chinese buyer
TANKER	BAI LU ZHOU	110,503	2007	CHINA	B&W		14.20-14.25	Indonesia buyer (Soechi Lines), Coiled
TANKER	FOLEGANDROS	109,900	2019	CHINA	B&W		42.5	Greek buyer (Capital), BWTS fitted, EPOXY
TANKER	KASTELORIZO	109,900	2019	CHINA	B&W		42.5	Greek buyer (Capital), BWTS fitted, EPOXY
TANKER	DONG TING HU	74,032	2007	CHINA	B&W		9.65-10	Undisclosed buyer, EPOXY
TANKER	HONG ZE HU	73,976	2007	CHINA	B&W		9.65-10	Undisclosed buyer, EPOXY
TANKER	SALAMINIA	47,407	2007	JAPAN	B&W		9.5-9.6	Undisclosed buyer
OIL/CHEM	ATLANTIC PISCES	49,999	2009	KOREA	B&W	3	15.0-15.5	Norwegian buyer
OIL/CHEM	TIGER HONGKONG	13,034	2009	KOREA	B&W		6	Undisclosed buyer
OIL/CHEM	GLOBAL MARS	12,898	2010	JAPAN	B&W		--	Undisclosed buyer
OIL/CHEM	DARA DESGAGNES	10,511	1992	GERMANY	B&W		--	Dominican buyer
CHEMICAL	NORDMAPLE	35,059	2018	CHINA	B&W		32.5	Spanish buyer (Marflet), BWTS fitted, DD passed
CHEMICAL	MENTOR	13,012	2007	KOREA	B&W	2&3	5.5	Indian buyer



III. TANKER

2) CONTAINER, REEFER,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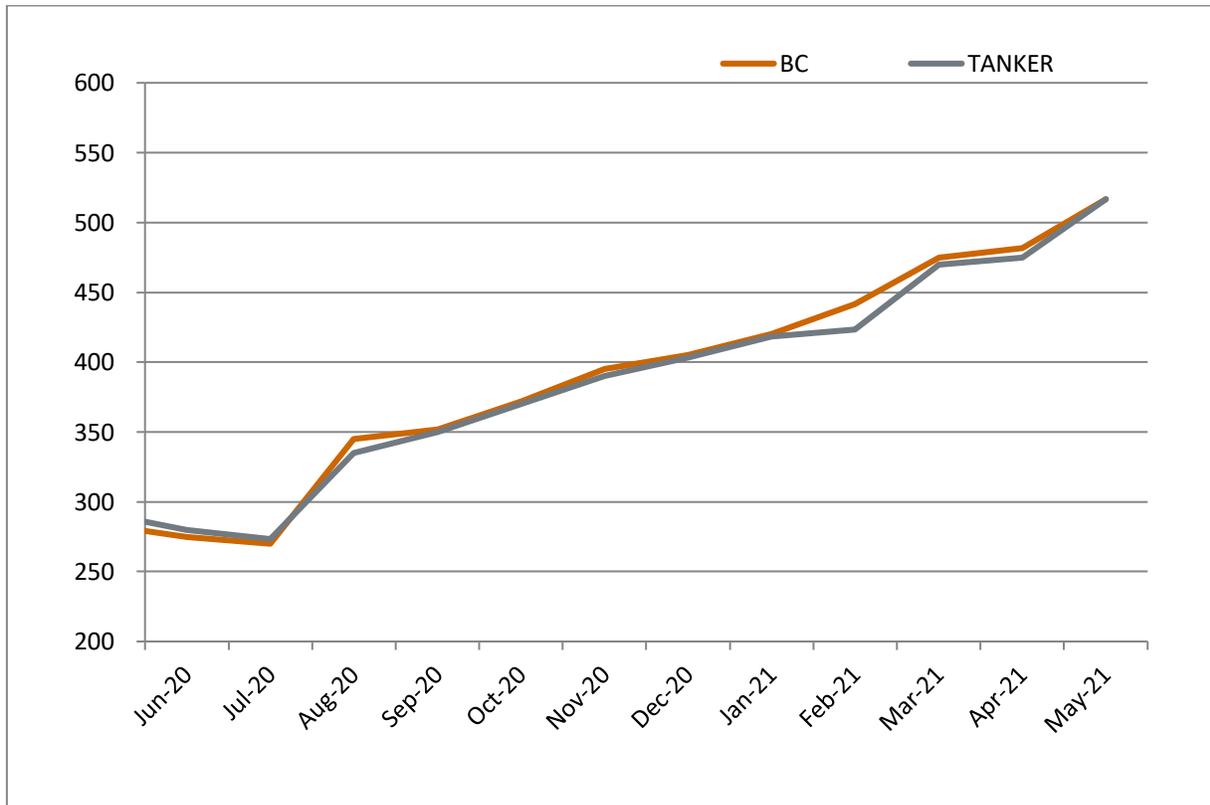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VENETIKO	67,009	2003	JAPAN	B&W	5928	TEU	--	European buyer
CONT	BLANDINE	65,700	2009	CHINA	WART	5301	TEU	38	Denmark buyer (Maersk)
CONT	SCIO SKY	39,307	2002	POLAND	B&W	2732	TEU	16.5	Switzerland buyer (MSC)

IV. DEMOLITION

1) 해체선가

	2019 평균		2020 평균		2021 평균		2020년 5월		2021년 5월		
	USD/LDT	증감률 (전년대비)	USD/LDT	증감률 (전년대비)	USD/LDT	증감률 (전년대비)	USD/LDT	USD/LDT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TANKER	396.39	-8.4%	344.44	-13.1%	460.67	33.7%	291.67	516.67	8.8%	77.1%	
BC	398.75	-9.5%	344.58	-13.6%	467.00	35.5%	283.33	516.67	7.3%	82.4%	

❖ 기준 : 인도해체선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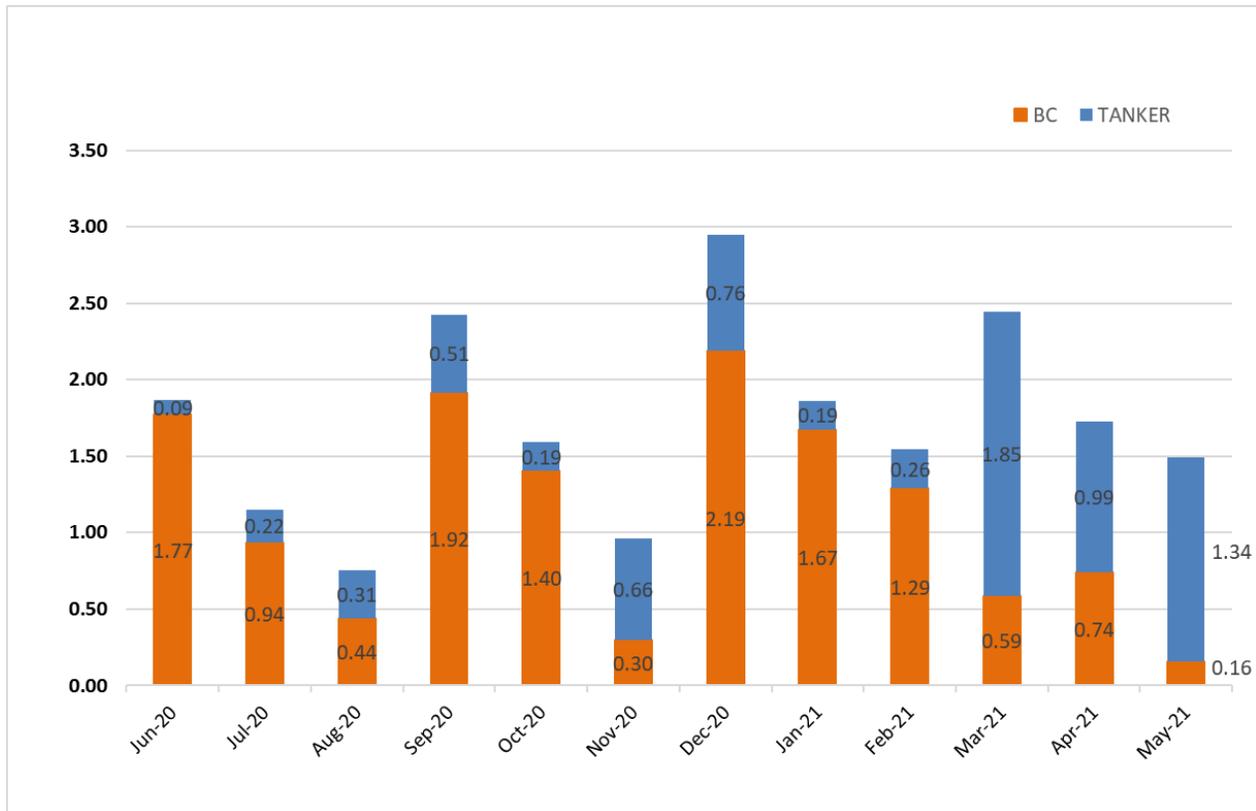


IV. DEMOLITION

2) 해체선 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19 년		2020 년 누적				2020 년 5 월		2021 년 5 월			
	Million DWT	No.	Million DWT	누적률 (전년대비)	No.	누적률 (전년대비)	Million DWT	No.	Million DWT	증감률 (전년대비)	No.	증감률 (전년대비)
TANKER	3.54	97	3.68	104.2%	112	115.5%	0.02	2	1.34	7,173.1%	29	1,350.0%
BC	7.45	116	15.61	209.7%	164	141.4%	1.33	10	0.16	-88.3%	8	-20.0%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IV. DEMOLITION

V-1.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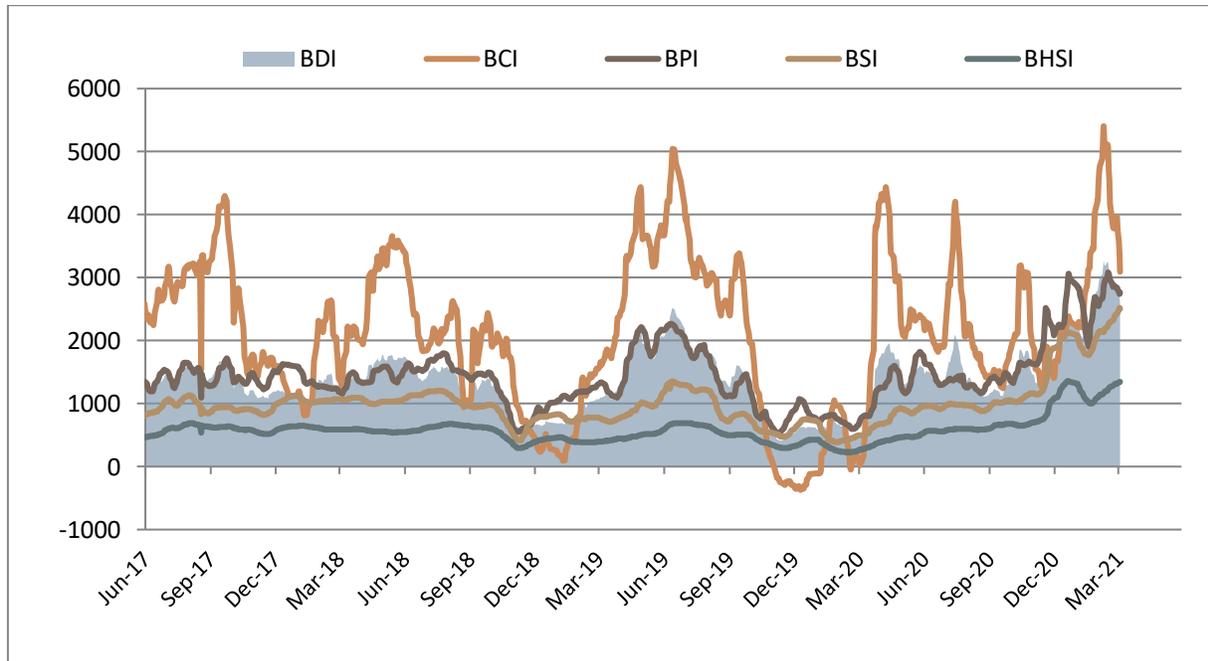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TANKER	ELKA VASSILIKI	94,143	17,843	2004	CROATIA	B&W	555	PAKISTAN



V . KEY INDICATORS

1) Baltic Index

	2021-05-28	2021-05-21	CHANGE	5 Year High	5 Year Low
BDI	2,596	2,869	▼-273.00	3266	393
BCI	3,089	3,930	▼-841.00	5404	-372
BPI	2,760	2,855	▼-95.00	3082	520
BSI	2,504	2,408	▲96.00	2520	383
BHSI	1,343	1,317	▲26.00	1360	228





V . KEY INDICATORS

2) Bunker Pric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전주대비증감
IFO380	496.00	▲25.00	492.00	▲19.00	496.50	▲15.00
MGO	574.50	▲15.50	555.50	▲23.00	588.00	▲20.00
LSMGO	559.00	▲15.00	559.50	▲25.50	-	-
VLSFO	387.50	▲20.50	386.50	▲21.00	387.50	▲11.50

❖기준일 : 5 월 28 일 기준

3) Exchange Rate

구분	2021-05-28	2021-05-21	CHANGE
미국 달러	1118.00	1132.20	▼-14.20
일본 엔(100)	1017.71	1040.48	▼-22.77
유로	1363.12	1384.28	▼-21.16
중국 위안	175.20	175.85	▼-0.65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VI. ISSUE & CONTACT INFORMATION

[시사상식] 애그플레이션 (Agflation)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신조어.

농산물 가격 상승이 물가상승을 야기하는 현상을 말한다. 중국과 인도 등에서의 수요급증, 옥수수나 사탕수수를 이용한 바이오연료 붐으로 인해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도시화에 따른 경작지 감소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한 작황부진으로 공급은 줄고 있는 상태이다. 영국 경제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 처음 사용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관련기사] 와도 걱정, 안와도 걱정...'비의 경제학'

울 들어 하늘이 자주 비를 뿌리고 있다. 28 일에도 비가 오면서 5월 들어 0.1 mm 이상 강수량을 기록한 날은 18 일에 달했다. 하루 걸러 한 번 이상 비가 내린 셈으로 이달 강수 일수는 최근 10년(2011~2020년) 평균인 8.1 일의 2 배를 넘는다. 지난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측정한 강수량도 예년의 2 배 수준이다.

봄 가뭄을 적잖이 걱정하던 농민들은 잦은 봄비를 반기고 있다. 3일 기준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은 평년의 110.5%, 다목적 댐 저수율은 125.4%를 기록했다. 특히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제주(평년의 77.9%)를 제외하면 전 지역에서 높아 모내기 철 물 부족 현상을 올해는 건너뛰게 됐다.

날씨에 민감한 가전 업계도 기능성 신제품들을 선보이며 '비의 경제학'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습한 날씨에 제습기 판매량은 이미 전년의 3 배를 넘었고 의류 건조기도 28%나 판매량이 뛰었다. 들쭉날쭉한 기온으로 전기담요와 온열기 등 겨울철에 주로 쓰이는 제품을 찾는 손님도 늘어 업계가 재고 관리에 신경을 쓴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강수량이 예상 외로 많아지자 정부와 농업계는 물론 기업도 지난해의 흉수 사태를 떠올리며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기상청은 7월 말에서 8월 초 무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역대 최장의 장마가 찾아와 예측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 원인인 '블로킹(고위도에서 정체하거나 매우 느리게 움직이는 온난 고기압)'은 올해도 출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상청은 "최근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이상기후 패턴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바이칼호와 몽골 지역, 동시베리아 부근에서 블로킹이 발달할 경우 우리나라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압계의 변화가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65년 만에 가장 이른 장마를 11일 선언한 일본과

VI. ISSUE & CONTACT INFORMATION

달리 장마가 한반도에서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기상청은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 기압계의 상황을 보면 정체 전선이 일본 남쪽 동중국해까지 남하해 당분간 올라오기 어려운 모습"이라며 "6 월 상순까지는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 불안정 속에 이상기후가 또 닥치면 농산물 작황을 망치면서 애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

기후변화와 코로나 19 로 글로벌 식량 위기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지난해 10 월 기준 톤당 185 달러였던 옥수수 가격은 최근 397 달러까지 올랐다. 소맥(29%)과 대두(70%), 원당 (65%) 등 주요 수입 곡물 가격은 지난해 대비 29~82% 상승했다. 고공 행진하는 국제 곡물가 역시 1 년 이상 지속된 남미의 가뭄과 호주의 한파 등 이상기후의 영향이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물가 당국은 갑작스러운 홍수 등 이상기후로 농수산물 등 식품 가격이 다시 불안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출처: 서울경제 박효정 기자]



VI. ISSUE & CONTACT INFORMATION

STL GLOBAL Co., Ltd.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Tel: +82-2-776-0840 (Rep.) Fax: +82-2-776-0864
 E-mail: seoul@stlkorea.com www.stlkorea.com

| SHIP SALE & PURCHASE |

Neal S.I. Kwon (권순일 상무)
 Senior Director
 Tel. 070-7771-6410
 Mob. 010-9496-0523
 snp@stlkorea.com
 neal@stlkorea.com

Joovi Park (박주비 대리)
 Assistant Manager
 Tel. 070-7771-6419
 Mob. 010-7794-6182
 snp@stlkorea.com
 joovi@stlkorea.com

| CHARTERING |

Sancho Kim (김현진 이사)
 Director
 Tel. 070-7771-6404
 Mob. 010-5756-9378
 biz@stlkorea.com
 sancho@stlkorea.com

Mike Hong (홍창목 부장)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7
 Mob.010-4855-8055
 biz@stlkorea.com
 mikehong@stlkorea.com

H.S. Lee (이현성 부장)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2
 Mob.010-4525-5079
 biz@stlkorea.com
 hslee@stlkorea.com

| RESEARCH |

Anna Lee (이혜란 과장)
 Manager
 Tel. 070-7771-6403
 Mob. 010-2258-5561
 snp@stlkorea.com
 anna@stlkorea.com

| AGENCY OPERATION (오수현 차장 Tel. 070-7771-6402, 박영단 과장 Tel. 070-7771-6407)

| FERROALLOY LOGISTICS (안지영 차장 Tel. 070-7771-6405)

| WAREHOUSE MANAGEMENT (진정식 과장 Tel. 070-7771-6406)

E-mail. operation@stlkorea.com

에스티엘 지투어 (www.stlgtour.com)
 Tel. 1661-8388 (Rep.) Fax. 02-6499-8388
 E-mail. tour@stlgtour.com

| 기업/일반 단체 항공 예약
 (김영하 실장 Tel. 070-4800-0151)

전남요트아카데미 (www.stlyacht.com)
 Tel. 061-247-0331 Fax. 061-247-0333
 E-mail. academy@stlyacht.com

| 보트/요트 면허취득 (이진행 실장 Tel.010-2777-4027)